

# 고인돌 유적에 미디어아트 선보인다

고창군,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선정... 20억원 투입 '고인돌 염원의 여정' 프로그램 예정

"드넓은 고인돌 유적지에 어둠이 내리면 3천 년전 선사시대가 깨어난다"  
고창군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관련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나선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2022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등)이 투입되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고인돌 유적의 초입부터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성한 거석! 고인돌 염원의 여정'을 주제로 6개의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3000년 전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유적에 프로젝션 맵핑 등 최첨단 융합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로 국민 누구나 세계유산을 느낄 수 있는 오감만족의 실감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력 넘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고창군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고인돌박물관에는 VR(가상현실), MR(복합현실), AR(증강현실) 기기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인돌 활용 미디어아트(찬란한 빛의 의식).

지역의 랜드마크인 고창읍성 역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연계 첨단 CT(Culture Technology) 실증사업(R&D)'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8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읍성 외곽 성벽을 미디어아트로 덮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문화재에 숨 불어넣고

색 입히는 것은 우리에게 문화유산의 신비로운 경험과 새로운 감동을 전해준다"며 "고창 고인돌 유적에 미디어아트를 제작·운영해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대표유산 및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수제천' 고장 정읍시, 학술대회·정기연주회 개최

수제천 본고장으로서 위상·우수성 알리고 발전 방향 모색

수제천의 고장 정읍에서 수제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사)수제천보존회(이사장 이영자)는 16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무고복원 및 수제천 전승 실태 학술대회'를 열었다. 또 지난 15일에는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제12회 수제천 정기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 수제천의 본고장으로서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수제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남대 환경재 교수가 좌장을 맡은 수제천 학술대회는 경북대 이동복 교수의 기조 발표

를 시작으로 조법중 우석대 교수의 '정읍사의 고려전승과정에 관한 사회적 고찰', 임미선 단국대 교수의 '대학후보에 의한 정읍곡 복원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안현정 이화여대 교수의 '대학후보에 의한 정읍곡 복원의 실제적 접근'과 안남순 한국전통문화연구원장의 '악학계법에 수록된 무고 복원의 실제적 접근'의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전날 열린 정기연주회에서는 장중하고 화려한 수제천 음악과 평화로운 날을 기원하는 '해령'이라는 곡의 연주가 펼쳐졌다.

또 고려 때 들어온 당악 보허자(步虛子)를 비롯하여 정읍에 정착해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 한결과 정읍여중생에 재학 중인 홍유경 학생의 협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태동한 훌륭한 문화유산인 수제천이 정읍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제천의 본고장으로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제천은 정읍이라는 지역명을 가진 유일한 전통 기악곡이다. 우리 고장 정읍시의 반주 음악으로서 선율이 아름답고 웅장하여 궁중음악인 아악 중 백미로 알려져 있다.

수명이 하늘처럼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제목을 가진 이 음악은 궁중 의례와 연향에 사용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수제천보존회는 16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무고복원 및 수제천 전승 실태 학술대회'를 열었다.

# 지리산허브밸리, 환경기획전 '지리산 환생전' 진행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허브밸리에서는 주변의 일상과 시설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이 예술가의 창의력으로 다듬어져 다시 생명을 얻는 '지리산 환생전'이 열리고 있다.

환생전은 아프리카창작소가 주관하는 환경기획전으로, 15일부터 29일까지 지리산허브밸리와 오해브레이크홀에서 개최하며, 이번 전시는 '지구야 아프지마(Earth, don't get sick)' 환경기획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과 시설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모티브로 하여 회화와 설치 미술 등 작가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작가들은 환생전을 통해 환경과 지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구야 아프지마' 캠페인은 지구를 아름답게, 아프지 않게 지키고 돌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환경 정화 프로젝트이다.

남원시는 현재 지리산허브밸리에 수목과 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감성적인 자연관광시설로의 집중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과 식물을 소재로 하는 작품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허브밸리에서는 주변의 일상과 시설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이 예술가의 창의력으로 다듬어져 다시 생명을 얻는 '지리산 환생전'이 열리고 있다.

# "현악기로 다양한 음악 장르 즐겨요"

문화공간 이름, 30일 'String Story 시리즈 I - 이노첸테의 콘서트'

문화공간 이름은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String Story 시리즈 I - 이노첸테의 콘서트'를 준비했다.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문화공간 이름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의 연주로 시작되는 클래식부터 영화음악, 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 전 좌석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전석 2만원) 공연과 관련된 문의는 전화(063-223-5323)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전북대, 문화유산 관리 기술개발사업 선정

문화재 수리용 목재 특대재 건조·함수율 측정 기술 개발 과제 수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문화재에 들어가는 특대재에 대한 건조 및 함수율 측정 기술개발에 나섰다.



이창진 연구조교수

이 대학 이창진 연구조교수(목재응용과학과)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개발사업'에 선정, '문화재 수리용 목재 특대재 건조 및 함수율 측정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문화재청의 이 사업은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및 정보 융·복합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문화재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보존·관리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2025년까지 총 481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재청은 분야별로 11개 과제에 대한 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 전북대가 '문화재 수리용 목재 특대재 건조 및 함수율 측정 기술 개발' 과제를 주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총 23억 7천500만 원을 지원받아 4년 8개월 동안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핵심 역할에 나선다. 이번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는 목조건축문화재 보수용 특대재의 건조기술 및 함수율 측정 모델 개발을 통한 수리기술 고도화다.

이창진 연구조교수는 "그간 목조건축문화재 수리용 국내산 목재 특대재는 천연건조에 의존하다보니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 수리·복원 후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과제를 통해 문화재 수리용 특대재의 건조특성을 규명하고, 건조 특대재의 함수율 표준 측정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해 목조건축문화재의 품질과 수리기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군산시민예술촌, '24초 영화공모전' 개최

군산시는 군산시민예술촌이 오는 10월 8일까지 '24초 영화공모전'을 개최하고 참가 응모팀을 모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4초 영화공모전'은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신의 하루가 한 편의 영화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추억이나 하루를 담은 동영상 24초 분량으로 제작·편집해 응모하면 된다.

접수신청은 군산시민예술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영상과 함께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시상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50편이 본선 진출하게되며 본선에 진출한 진출팀 중 대상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시상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3시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과 야외 뒷뜰에서 '군산개복단편영화제'를 통해 실시되며 본선 진출작 및 초청작 상영, 레드카펫, 포토존, 프리마켓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공연장 입장객 제한이 있어 공연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관객도 야외 LED전광판을 통해 시상식을 관람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작업복 단체복 | 여성기업

안전화 안전용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명찰, 로고 각종 인쇄

판촉물 기념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대표전화 063)227-4610 | NAVER 은혜상사(주) |

팩스번호 063)227-4619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